

입원아동과 간호사가 지각한 돌봄에 대한 연구*

김 정 선^{***} · 김 신 정^{**}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돌봄은 가장 오래된 인간 행동 중의 하나로서 문화에 의해 표현되고(Leininger, 1981) 간호하는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가치로서 행동과 태도를 좌우하는 규범적인 기준을 제공해준다(Carper, 1979). 오늘날 건강관리 체계는 산업주의와 의료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간에 대한 관심보다 기술이 더 강조되어 본래의 간호이념인 돌봄은 점차 쇠퇴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나이팅게일 시대부터 지금까지 돌봄은 간호의 중심개념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개념으로서 덜 발달된 상태이며 분명히 언급되어지지 않고있다(Morce, 1991).

Bevis(1978)는 돌봄을 보편적인 인간현상으로 문화에 따라 독특한 돌봄현상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Leininger(1978)도 문화적 배경이 다른 아동들은 돌봄제공자인 간호사들에게 다른 기대를 가지며 반응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돌봄을 문화적으로 일치한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기초로 보았으며 돌봄행동, 가치와 실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치료적인 간호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믿었다.

Watson(1979)에 의하면 돌봄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와 대상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로서 간호실무의 핵심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대상의 지각을 고려하므로써 간호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Mitchell, 1973) 인간의 지각은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들이 직접 관찰할 수 없으며 다만 그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될 수 있을 뿐이다(한운복 외, 1988).

전문적 간호사는 환자를 돕기 위해 환자의 돌봄에 대한 사고체계를 알아야 하는데 돌봄에 대한 전문의료인의 지각과 환자의 지각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다. 이런 격차를 Leininger는 문화적 불일치라고 하였으며 간호실무에서 돌봄차이와 유사성을 다룬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Leininger, 1988).

돌봄제공자와 대상자의 돌봄에 대한 지각,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간호사의 관점에서만 돌봄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것은 대상자의 경험과 거의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대상자의 기대에 적합한 중재를 하기위해 돌봄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뿐 아니라 개념에 대한 불일치를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돌봄은 문화에 따라 의미와 표현, 행동양상이 다양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탐색

* 이 논문은 '91학년도 교육부 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기독교병원 간호전문대학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원

을 위해서는 질적 접근방법이 적절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원아동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돌봄에 대한 지각을 알아봄으로써 돌봄에 대한 이론발달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B.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입원아동과 간호사가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는지 알아봄으로써 돌봄의 의미를 개념화하고 돌봄에 대한 이론 발달의 기초와 아울러 대상자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입원아동이 지각한 돌봄의 의미와 방법 및 경험에 대해 진술한다.
- 2) 간호사가 지각한 돌봄의 의미와 방법 및 경험에 대해 진술한다.
- 3) 입원아동과 간호사가 지각한 돌봄의 의미와 방법 및 경험을 비교해 본다.

C.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의도가 많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

II. 문헌고찰

A. 돌봄의 정의 및 개념

돌봄은 cura로부터 유래되어 과거 수십년동안 간호의 핵심으로 정의되어 왔으나 그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고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care, nursing care, caring에 대한 용어의 사용이 확실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nursing에 대한 접미사로서 흔히 간호와 유사하게 사용되어 왔다. 초기 돌봄이론가 중 하나인 McFarlane(1976)은 간호를 실제로 돌봄과 같은 것이라고 했으며 Dier(1986)도 간호가 곧 돌봄이라고 하였다.

돌봄은 학자에 따라 인간고유의 속성으로, 간호의 도덕적 이상, 정서, 상호작용, 혹은 치료적 중재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간고유의 속성(trait)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돌봄은 인간 존재의 양식이며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 경험은 돌보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Leininger(1985)는 돌봄이 간호의 핵심이며 통합적

인 영역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돌봄의미와 요소는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care와 caring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는데 care는 명사로서 인간이 처한 상황이나 생활방식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보조적이고 지지적이며 촉진하는 현상이며 caring은 동사로서 그러한 대상을 위한 보조적, 지지적, 촉진적 행동으로 전문적 간호와 구별하였다.

돌봄을 도덕적 과정으로 보는 학자들은 돌봄을 간호의 기본가치, 혹은 이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Gadow, Watson은 돌봄을 간호실무의 기초로 생각하고 환자의 존엄성을 보존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돌봄을 정서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환자에 대한 감정이입이나 동정의 느낌으로 이는 간호행위의 동기가 되며 간호사는 즉각적인 만족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기심 없이 행동해야 한다고 하였다. Forrest(1989)는 자신을 환자임장으로 놓는것은 마음과 행동 모두 환자를 첫째로 두는 것이라고 하였다.

돌봄을 간호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학자들은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느낌과 행동을 모두 돌봄에 포함시켰는데 서로 의사소통적이며 신뢰적이고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Benner와 Wrubel(1989)은 돌봄은 환자가 대처하도록 돕는 것이며 환자에게 관심있는 사고, 느낌, 행동으로 정의한 반면 Weiss(1988)는 전적으로 간호사에게 초점을 두었다.

돌봄을 간호중재로 정의하는 학자들은 경청이나 환자 교육, 환자옹호, 접촉, 함께함 등의 간호문제와 모든 간호절차를 돌봄에 포함시켰다. Orem(1971)은 간호사의 주요한 돌봄기능은 다른 사람을 위해 활동하거나 수행하는 것(doing), 지도(guiding), 지지하고 개인적 발달을 증진하는 환경제공과 효과적으로 간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helping system에 의해 확인했다. 따라서 간호사와 환자의 상호작용, 간호중재 차원에서 정의하는 입장은 전문적 간호의 중요영역으로써 돌봄을 강조하였다.

Watson(1979)은 간호의 핵심을 돌봄이라 하고 치료적인 간호사 환자관계를 강조하였다. 인간적인 돌봄(human care)은 대인관계적으로만 증명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간호과학과 실무를 포함하는 10가지 돌봄 구성요소(carative factor)를 제시하였다. Leininger(1985)도 여러 문화에서 돌봄의 구성요소를 확인했는데 안위, 동정심, 관심, 감정이입, 사랑, 도움, 양육, 접촉, 지지, 나눔, 회복, 보호, 등으로 나타났다. Roach(1991)

는 돌봄의 요소를 Compassionate, Competent, Confidence, Conscience, Commitment의 5C로 범주화 하였으며 Dornbeck(1991)은 이해, 고려, 관심, 함께함의 네 가지 범주로 돌봄을 기술하였다.

Swanson-Kauffman(1988)은 앎(Knowing), 함께함, 행함, 가능하게 함, 신념 유지로 기술하였다. Gaut(1983)는 타인에 대한 관심, 책임감, 존중, 사랑함, 애착이 돌봄에 포함된다고 했으며 Mayeroff(1971)는 돌봄의 8가지 필수적 요소를 앎, 지식, 인내, 정직, 신뢰, 겸손, 리듬의 변화, 소망과 용기라고 하였다. Noumen은 슬픔, 고통에 참여하고 같이 울음, 주의깊게 경청, 부드럽게 말함, 함께 있음, 자신을 나누는 것을 돌봄에 포함하였다(Wolf, 1986). Fromm은 돌봄을 사랑의 네 가지 구성요소 중의 하나라고 했으며 Rogers는 사랑과 돌봄을 같다고 하였다. Orem은 돌봄을 마음의 상태로 보았으며, Nodding(1984)은 다른 사람의 곤경에 몰두함으로써 타인의 불편감을 해결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돌봄이라고 하였다.

최영희(1990)는 돌봄구성 요소를 존중, 신뢰, 정, 봉양, 안위, 연민, 애통합, 자신을 다스림, 가르침, 기원의 10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고, 조, 최, 강(1990)의 한국인의 민간돌봄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르침, 기원, 안위, 복돋움, 나눔, 이심전심, 보호, 준비, 도움, 연민 등 14개의 돌봄 구성요소로 범주화하였다.

변영순, 김남선(1989)은 사랑, 도움, 공감, 편안, 인정, 지지, 관심, 충족, 건강, 회복의 돌봄구조를 확인하였다. 김애정(1991)은 돌봄의 구성요소로서 관심, 온정, 성의, 함께함, 부드러움, 도움, 편안함, 가르침, 위로로 범주화 하였으며 비돌봄의 구성요소로는 무관심, 냉담함, 무성의, 함께하지 않음, 거칠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조갑출(1992)의 연구에서는 관심, 편안, 도움, 사랑, 책임, 함께함, 인간존중, 온정, 공감, 신뢰 가르침으로 돌봄 구성요소를 분류하였다.

이 외에도 돌봄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그 내포된 의미나 구성요소 및 행동양상도 다양하다.

B. 돌봄에 대한 지각

돌봄은 제공자와 수혜자에 의해 상호지각을 요구하며 간호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의미와 표현의 차이는 양자 모두에게 불만족을 준다(Leininger, 1980). 따라서 간호제공자와 대상자간의 개념에 대한 불일치를 제거해

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사와 대상자의 지각의 일치하는 간호사-대상자 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Watson은 돌봄행동을 도구적, 표현적 행동으로 분류하였는데 도구적 행동은 환자의 신체적, 치료적 요구(투약, 치료절차)에 초점을 두고, 표현적 행동은 정서 사회적 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그는 동료들과의 연구에서 간호사와 대상자의 돌봄에 대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확인했는데 간호사는 돌봄의 정서적 영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환자들은 신체적 간호와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지각의 불일치를 보였다(Porter, 1986). Johnston과 White도 간호사는 환자의 정서적 문제를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신체적인 면은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Farrell, 1991). Riemer(1986)과 Larson(1984)도 간호사의 돌봄행위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는 신체적 간호봉사에 돌봄의 가치를 둔 반면 간호사는 정서적 지지 중재에 가치를 두어 간호사와 대상자 사이에 지각의 차이를 보였다. Brown(1981)의 연구에서는 비록 돌봄의 정서적 구성요소가 중요할지라도 대상자가 신체적 안녕에 초점을 둔 것으로 돌봄을 지각하였다. Larson(1987)은 내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자들은 도구적 행동에 더 우선순위를 둔 반면 간호사는 표현적 행동에 더 중요성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Mayer(1987)도 Larson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간호사는 잘 들어주고 환자는 주사, IV놓는 방법을 아는것을 돌봄의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지각하여 차이가 있었다. Brown과 Henry는 환자의 관점으로부터 돌봄 특성과 간호사의 행동을 확인했는데 Henry(1975)의 연구는 간호사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대해 세가지 범주로 서술하였다. Brown에 의하면 간호사는 흔히 환자들보다 표현적 행동을, 환자들은 도구적인 행동을 돌봄의 지침으로 확인하였으며 환자의 요구와 일치한 것을 돌봄행위로 지각한 반면 환자의 요구에 대한 불일치한 간호행위를 비돌봄(noncaring)이라고 하였다 (Brown, 1986). 이상에서와 같이 환자들은 간호사보다 더 도구적이고 전문적인 돌봄기술에 가치를 두고 있는 반면, 간호사는 표현적 행동을 높게 평가하였다. 따라서 환자들은 도구적인 활동을 통해 신체적 욕구가 충족되기까지는 표현적 돌봄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Mayer(1987)는 환자에 의해 지각된 중요한 간호사의 돌봄행위를 확인하므로써 돌봄 행동목록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현적이고 도구적인 돌봄 행동의 통합(고도의

기술과 고도의 접촉)은 Benner에 의해 정의된 것 같이 숙련된 간호사에게 더욱 명백히 나타날 수 있다. Naisbitt는 우리 주위에 고도의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접촉을 위한 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Kelly, 1984). 이러한 연구결과 돌봄에 대한 지식은 간호사-환자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돌봄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더불어 대상자들에게 더욱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질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입원아동과 간호사의 돌봄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연구방법으로서 서술적 방법을 시도하였다.

A. 연구대상

연구대상의 모집단 선정은 임의표본 선정을 통해 서울 시내와 지방에 소재한 3개의 대학 부속병원과 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입원아동은 소아과 병동에 입원한지 2일 이상이 된 의 사소통이 가능한 학령기 이상의 아동으로 수술환아를 제외한 총 76명을 선정하였으며, 간호사는 소아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총 6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B.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1991년 11월 15일부터 1992년 1월 30까지 약 두달 반 정도 소요되었으며 이에 앞서 사전조사는 1991년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원아동과 간호사 각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면접방법과 개방형의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는데 질문지는 돌봄의 의미, 방법, 경험에 대한 내용을 문헌고찰 및 사전조사를 통하여 작성하였다. 간호사에 대한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환아를 돌보고 보살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 * 환아를 어떻게 돌보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 지금까지 돌봄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에게 어떠한 돌봄을 받았습니까?)

- 환아를 돌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환아를 돌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에 대해 직접 질문지에 기술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만일 진술한 내용이 부족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 면담을 통해 자료를 보충하였다.

입원아동에 대한 질문내용은 간호사와 동일한 내용을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간호사가 돌봐준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지(돌봐준다 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어사전에 의하여 '도와준다'로 바꾸어 물어봄),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주로 누가 어떻게 도와주었는지에 대해 직접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대상자의 양해하에 면담자료의 누락 및 오기등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하였으며 입원아동의 사전정보는 chart의 기록 및 병동 수간호사와 간호사로부터 제공받았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20분-50분 정도로 검사나 처치, 식사시간을 피한 한가한 시간을 주로 이용하였는데, 아동의 경우 이야기를 잘 하지 않거나 표현력의 제한으로 면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간호사와의 면담은 15분-4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미리 처치, 투약 및 순회시간을 제외한 한가한 시간을 물어 양해하에 사전 약속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였으나 병원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면담이 방해받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

C. 자료분석과정

녹음된 원자료는 van Kaam의 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입원아동과 간호사의 돌봄의미, 방법, 경험 등을 비교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로 대상자와의 면담 및 질문지를 통해서 얻어진 돌봄의 의미에 대한 자료를 여러번 반복하여 듣거나 읽으면서 대상자가 진술한 말을 그대로 옮겨 기술하였다.

2단계에서는 기술된 내용에서 돌봄과 관련된 의미있는 절과 문장을 반복하여 추출한 결과 입원아동이 79개, 간호사가 109개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돌봄개념은 신뢰도 검증을 위해 연구자 2인이 동일한 원자료를 가지고 각기 자료를 분석한 후 상호일치도 수준인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신뢰계수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M : 두 분석자가 일치된 분석수
 $\frac{2M}{Na+Nb}$
 Na : 분석자 a가 분석한 분석수
 Nb : 분석자 b가 분석한 분석수

입원아동과 간호사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0.938, 0.921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신뢰도 검증후 최종적으로 의미있다고 확인된 진술은 입원아동이 총 61개, 간호사가 총 88개였다.

3단계에서는 추출된 의미있는 진술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를 다시 공통되는 특성으로 묶어 범주화하였다. 범주화 과정에서 의미있는 항목중 대상자가 의미하는 뜻은 같으나 진술한 표현이 다른 항목은 한 항목으로 묶지않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여 대상자들의 표현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이들 진술 중 일부는 두개 이상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중복되게 분류하지 않고 대상자가 강조를 두었다고 판단되는 개념에 포함시켰다. 또한 범주화 작업시 원자료에서 같은 속성들끼리 모아서 하위 구성요소(sub category)를 정했는데 아동의 경우 15개, 간호사는 17개로 나타났다. 이들의 속성을 다시 통합한 결과 아동과 간호사 각각 8개의 구성요소로 범주화되었으며 이들 자료는 빈도순으로 나열하였다. 원자료의 범주화는 문헌고찰 및 국어사전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의 직관에 의해 실시되었으므로 범주화에 관한 내용 타당도 검증은 간호학 교수 3인, 박사과정 2인, 석사과정 이상의 자격을 지닌 간호사 2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분류된 범주화를 통하여 입원아동과 간호사가 경험한 돌봄에 관한 현상을 기술하였다.

돌봄의 방법과 경험등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돌봄방법에서는 입원아동과 간호사 각각 12개, 17개의 하위구성요소에서 6개의 구성요소로 범주화되었으며 돌봄받은 경험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간호사로부터 받은 돌봄의 하위 구성요소가 각각 8개, 10개에서 4개의 구성요소로 범주화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A.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1. 입원아동의 일반적 배경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연령별 분포는 7-8세가 14명(18.4%), 9-10세가 25명(30.9%), 11-12세가 27명(35.5%), 13세 이상이 10

명(13.2%)이었다. 성별로는 남아가 47명(61.8%)으로 여아보다 더 많았으며 형제순위는 첫째가 38명(50.0%)로 가장 많았다. 입원기간은 3일 이상이 65명(8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과거 입원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41명(53.9%)으로 더 많았다. 종교를 가진 대상자는 56명(73.7%)으로 그 중 기독교가 34명(44.8%)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는 서울과 지방이 각각 49명(64.5%), 27명(35.5%)으로 나타났다.

2. 간호사의 일반적 배경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21-25세가 26명(39.4%), 26-30세가 28명(42.4%), 31-35세가 9명(13.6%), 36-40세가 3명(4.5%)으로 총 66명이었다. 학력별 분포는 대졸이 36명(54.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상태는 미혼이 49명(74.2%)으로 기혼보다 더 많았다. 경력은 1-5년이 43명(65.2%)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인 경우는 7명(10.6%)이었다. 과거 입원경험이 없는 경우가 45명(68.2%)으로 있는 경우보다 더 많았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48명(72.7%)으로 그 중 기독교가 31명(47.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거주지는 서울과 지방이 각각 36명(54.5%), 30명(45.5%)으로 나타났다.

B. 결과 및 논의

1. 돌봄의 의미

원 자료에서 여러번에 걸쳐 돌봄의미에 대한 의미있는 진술을 도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의미있다고 확인된 진술은 입원아동이 총 61개, 간호사가 총 88개였으며 입원아동에 있어 돌봄의미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20명으로 26.3%를 차지하였다.

돌봄의 의미에 대한 자료의 분류결과 입원아동과 간호사가 지각한 돌봄 구성요소는 <표 1-1>, <표 1-2>에서와 같이 각각 8개로 나타났다. 입원아동의 경우 <도움>, <안위>, <사랑>, <온정>, <회복>, <함께함>, <양육>, <책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에서는 <도움>, <안위>, <회복>, <사랑>, <건강유지>, <함께함>, <양육>, <책임>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움>의 범주가 입원아동이 37명(47.4%), 간호사가 42명(40.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입원아동에서는 <건강유지>가, 간호사에서는 <온정>의 범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표 1-1> 입원아동이 지각한 돌봄의 의미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원 자 료
도 움	도와줌	남을 도와주는 것(3)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혼자서 못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것(2) 힘든 것을 도와주는 것 밥먹을 때, 화장실 갈 때 도와주는 것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4) 못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것 옆에서 이것 저것 해주는 것 아플 때 도와주는 것(3)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무엇인가 해 주는 것 보살피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시중들어 주는 것 심부름 해 주는 것
	요구를 충족시켜 줌	필요한 것을 해 주는 것(2) 하고 싶은 대로 해 주는 것(2) 바라는 일을 해 주는 것 기쁘게 해 주는 것
	처치해 줌	아플 때 주사주는 것 병 간호를 해 주는 것 체온을 재 주는 것 치료를 해 주는 것
	지지해 줌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일으켜 주는 것 아플 때 부축해 주는 것 힘들 때 도움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가르쳐 줌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가르쳐 주는 것
안 위	편안하게 해 줌	불편한 것을 편하게 해 주는 것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 편안하게 해 주는 것
	고통을 덜어 줌	안 아프게 해 주는 것 편안하고 아프지 않게 해 주는 것 어려울 때 고통을 덜어주는 것
	위로해 줌	아플 때 위로를 해 주는 것 옆에서 위로해 주는 것 달래주는 것
사 랑	사랑함	남을 사랑하는 것
	관심을 가짐	관심을 갖는 것(2) 아픈곳, 불편한 곳이 없는지 물어보는 것 와서 봐 주는 것 챙겨 주는 것 관심을 써 주는 것
은 정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 줌	부드럽게 말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을 감싸주는 것 신경질 내지않고 잘 대해주는 것 친절하고 딱딱하지 않은 것 안때리는 것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원 자 료
		친절하게 해 주는 것 잘 대해주는 것
회 복	낮게 함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빨리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픈 것을 빨리 낮게 해 주는 것 병을 고쳐주는 것 병을 낮게 해 주는 것(3)
함 께 함	같이 있어줌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것(2) 옆에 있어주는 것(3) 사이좋게 같이 노는 것
양 육	길러줌	엄마가 길러주는 것과 같은 것.
책 임	임무를 수행함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

<표 1-2> 간호사가 지각한 돌봄의 의미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원 자 료
도 움	도와줌	신체적 정서적으로 정상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 건강하고 올바르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 정상발달 과업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 육체적, 정신적 요구를 파악하여 도움을 주는 것 정상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2)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으로 돌보는 것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것 집에서와 같은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긍정적 과정으로 되도록 돕는 과정 봉사행위를 하는 것
	지지해 줌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 빠른 시일 내 치료되도록 지지해 주는 것 환아를 지지해 주는 것(2) 문제발생시 즉각적인 대처를 하는 것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나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치치해 줌	간호와 진료를 제공해주는 것 직접적인 간호를 제공해주는 것(2) 적절한 간호를 하는 것 물리적, 정신적 처치를 하는 것 질병을 치료하는 것 문제점이나 상태를 파악하여 간호해 주는 것 처치를 해 주는 것
	요구를 충족시켜 줌	필요를 미리 알아 채워줌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원 자 료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배고플 때 먹여주는 것
	가르쳐 줌	잘 설명해주는 것(2) 건강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
	보호해 줌	보호해주는 것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안 위	편안하게 해 줌	육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는 것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 신체적 불편감을 덜어주는 것 심신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2) 안락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 춤과 덤지 않게 조절해 주는 것 최대한 편안하도록 도와주는 것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2)
	고통을 덜어 줌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것(2) 불안, 공포를 감소시키는 것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공포감을 해소시키는 것
회 부	낮게 함	나을 수 있도록 하는 것(2) 질병에서 회복되도록 하는 것(2)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3)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 정상적인 몸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원래의 건강상태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 병의 완쾌를 돕는 것 질병에서 치유되도록 하는 것 신체적으로 건강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
사 랑	사랑함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애정을 갖는 것 마음을 다해 간호하는 것 사랑하는 것(2)
	관심을 가짐	관심을 가져주는 것 관심을 갖고 대하는 것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 마음을 이해하는 것
	존중함	권리를 존중하는 것
건 강 유 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함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 보다 더 나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2)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3) 건강을 증진하는 것
합 께 함	같이 놀아 줌	같이 놀아주는 것(2) 같이 이야기 해주는 것 자주 접촉하는 것(2)
양 육	키워 줌	우유를 먹여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주는 것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장래 기둥이 될 재목으로 완전하게 키워내는 것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원 자 료
책 임	임무를 수행함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 사명감을 갖는 것

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1-3).

<도움>의 속성에는 ‘도와줌’, ‘요구를 충족시켜줌’, ‘처치해 줌’, ‘가르쳐 줌’, ‘보호해 줌’을 포함했는데 입원 아동과 간호사 모두 ‘도와줌’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입원 아동에서는 ‘보호해 줌’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간호사는 <도움>에 대한 속성이 모두 나타났다.

‘도와줌’에 대한 입원아동의 의미있는 진술은 “남을 도와주는 것”,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 “혼자서 못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것” 등이었으며 간호사의 진술은 “정상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으로 돌보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들이 지각한 돌봄에서도 <도움>의 구성요소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김정선, 1991) 입원아동들은 주로 신체적 도움을 많이 나타내어 김애정(1991)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신체적 도움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도움과 심지어 영적인 도움까지 포함하고 있어 간호하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요구를 충족시켜줌’에 대한 진술은 입원아동은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 “하고 싶은대로 해주는 것” 등이었고, 간호사는 “필요를 미리 알아 채워주는 것”,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등으로 나타나 입원아동과 간호사의 진술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iemen(1986)에 의하면 대상자는 자신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간호사를 돌봐주지 않는 것(noncaring)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처치해 줌’은 “아플 때 주사주는 것”, “체온을 재 주는 것” 등으로 입원아동이 진술하였고 간호사는 “간호와 진료를 제공해 주는 것”, “질병을 치료하는 것” 등으로 입원아동과 간호사가 전문적인 간호업무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병원이라는 환경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지지해 줌’은 입원아동의 경우 “아플때 부축해 주는 것”으로, 간호사는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등을 포함했는데 입원아동보다 간호사가 더 많은 빈도로 나타났다. Leininger(1981)는 지지란 강화시키고 적응하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간호사는 환자가 일상적인 삶에 적

응하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가르쳐 줌’은 입원아동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간호사는 “잘 설명해 주는 것”, “건강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Leininger의 health instruction acts와 유사한 의미로서 돌봄의 보편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보호해 줌’에 대한 진술은 간호사에서만 “보호해 주는 것”,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각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였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자의 연구(1991)에서도 보호의 개념이 이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고, 조, 최, 강(1900)의 연구에서는 몸을 보하다, 예방하다의 개념으로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움>의 속성 중 ‘도와줌’, ‘요구를 충족시켜줌’, ‘가르쳐 줌’은 입원아동이 간호사보다 더 많이 나타났으며 ‘처치해 줌’, ‘지지해 줌’은 간호사가 더 많이 나타났다. 간호사의 주요한 돌봄기능은 활동하고(acting), 행하는 것(doing), 지도(guiding), 신체적, 정서적 지지, 개인의 발달을 증진시키는 환경제공과 효과적으로 간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였다(Orem, 1971).

입원아동과 간호사에게 두번째로 많이 나타난 범주는 <안위>였으며 간호사가 입원아동보다 더 많은 빈도를 나타냈는데, Larson(1987)의 연구에서도 간호사가 환자보다 안위와 신뢰관계에 더 높은 순위를 나타내었다. <안위>의 속성은 아동에서 ‘편안하게 해 줌’, ‘고통을 덜어 줌’, ‘위로해 줌’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간호사에서도 ‘편안하게 해 줌’, ‘고통을 덜어 줌’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위로해 줌’은 나타나지 않았다.

‘편안하게 해 줌’에 대한 아동의 진술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등이었으며 간호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는 것”, “신체적 불편감을 덜어 주는 것”,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등으로 나타났다.

‘고통을 덜어 줌’은 아동이 “안 아프게 해 주는 것”, “어려울 때 고통을 덜어주는 것”으로, 간호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것”,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등으로 진술했는데 <안위>의 속성으로서 ‘편안하게 해 줌’과 ‘고통을 덜어 줌’을 한 항목으로 묶지

않고 의미를 좀 더 세분하여 진술하였다.

‘위로해 줌’은 “아플 때 위로해 주는 것”, “달래주는 것” 등으로 아동에게서만 의미있는 진술이 나타나 지각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였다.

〈사랑〉의 범주도 간호사가 아동보다 더 많이 나타났는데 그 속성으로는 ‘사랑함’, ‘관심을 가짐’, ‘존중함’을 포함하였다. 간호사에서는 ‘사랑함’, ‘관심을 가짐’, ‘존중함’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아동은 ‘관심을 가짐’, ‘사랑함’의 순서로 나타났고 ‘존중함’의 진술은 없었다.

‘사랑함’에 대한 진술은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아동은 단지 한사람만 진술하였으며 간호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등으로 아동보다 더 많은 빈도를 보였다. Fromm과 Bevis(1981)는 사랑을 돌봄의 구성요소로 보았으며 최영희(1990), 김애정(1991)의 연구에서는 사랑을 우리나라의 [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관심을 가짐’은 “관심을 써 주는 것”, “와서 봐 주는 것”, “불편한 곳이 없는지 물어보는 것” 등으로 아동이 진술했으며 간호사는 “관심을 갖고 대하는 것”,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 등을 포함했다. 관심의 표현은 자주 물어봐주고 찾아봐주고 신경을 써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김애정, 1991, 김정선, 1991) 본 연구에서도 일치함을 보였다.

‘존중함’은 아동에게서는 나타나지 않고 “권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간호사 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 이를 〈사랑〉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온정〉은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줌’으로 간호사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입원아동에서만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 “친절하게 깨우는 것”, “다른 사람을 감싸주는 것” 등으로 나타나 지각의 불일치를 보였다. 입원환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갑출(1992)의 연구에서는 〈온정〉의 범주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김애정(1991)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온정이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범주라고 보았다.

〈회복〉의 속성은 ‘나게함’으로 간호사가 아동보다 많은 빈도를 차지했는데 입원아동은 “아픈것을 빨리 낫게 해 주는 것”,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간호사는 “질병으로부터 낫게 하는 것”, “질병에서 회복되도록 하는 것” 등으로 진술하여 서로의 지각이 일치함을 보였다. 이는 간호사-환자 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Mayer, 1987).

〈건강유지〉는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함’으로 아동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간호사에서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 등으로 진술하여 지각의 불일치를 보였다.

〈함께함〉의 범주는 아동이 간호사보다 더 많이 나타났는데 ‘같이 있어 줌’에 대한 아동의 진술은 “어려울 때 있어주는 것”, “옆에 있어주는 것”, “사이좋게 노는 것”으로, 간호사는 “같이 놀아주는 것”, “자주 접촉하는 것” 등으로 진술하여 ‘같이 놀아줌’이라고 하였다.

‘관계를 맺음’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부드러운 사이가 되는 것”의 진술을 포함했는데 입원아동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함께함〉은 조갑출(1992)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나 관계를 맺는 것보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돌봄의 범주로 확인되었으며(김애정, 1991; 김정선 1991) 돌봄은 어떤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것이고(McNally, 1977; Parse, 1978) Heidegger도 돌봄을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Guthrie, 1979).

〈양육〉의 범주는 아동의 경우 단 한명만이 진술했는데 “엄마가 길러주는 것과 같은 것”을 ‘길러줌’으로 간호사는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주는 것”,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진술을 ‘키워줌’이라고 하였다. 본인의 연구(1991)에서도 간호학생들이 지각한 돌봄의 의미 중 양육의 내용이 아주 적은 빈도로 나타났는데, 양육적인 돌봄행위가 많이 나타날 때 대상자에게 보다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방매륜, 1983).

〈책임〉의 속성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으로 단 한명만이 진술했고 간호사에서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 “사명감을 갖는 것”으로 진술하여 지각이 일치함을 보였다. Roach(1991)는 책임을 돌봄의 요소로 보았는데 조갑출의 연구(1992)에서도 이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입원아동과 간호사의 돌봄의 의미에 대한 지각에서는 〈건강유지〉와 〈온정〉의 범주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Leininger의 구성요소와 비교해 볼 때 〈도움〉, 〈안위〉, 〈사랑〉, 〈회복〉, 〈건강유지〉, 〈함께함〉, 〈양육〉등의 요소가 일치하였다. 또한 변영순, 김남선(1989), 조갑출(1992)의 연구에서 확인된 〈공감〉, 〈신회〉와 본인(1991)의 연구에서 확인된 〈나눔〉은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표 1-3〉입원아동과 간호사가 지각한 돌봄의 의미

구 성 요 소	하 위 구성 요소	입원 아동		간 호 사	
		빈도	계(%)	빈도	계(%)
도 움	도와줌	22	37(47.4%)	15	42(40.0%)
	요구를 충족시켜줌	6		4	
	치치해줌	4		6	
	지지해줌	3		12	
	가르쳐 줌	2		3	
	보호해 줌	0		2	
안 위	편안하게 해 줌	6	12(15.4%)	12	18(17.1%)
	고통을 덜어 줌	3		6	
	위로해 줌	3		6	
사 랑	사랑함	1	7(9.0%)	6	11(10.5%)
	관심을 가짐	6		4	
	존중함	0		1	
온 정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 줌	7	7(9.0%)	0	0(0.0%)
회 복	낮게 함	7	7(9.0%)	13	13(12.4%)
건 강 유 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함	0	0(0.0%)	8	8(7.6%)
함 께 함	같이 있어 줌(놀이줌)	6	6(7.7%)	5	7(6.7%)
	관계를 맺음	0		2	
양 육	길러 줌(키워 줌)	1	1(1.3%)	4	4(3.8%)
책 인	임무를 수행함	1	1(1.3%)	2	2(1.9%)

2. 돌봄의 방법

“어떻게 돌보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입원아동과 간호사의 돌봄의 방법에 대한 지각은 돌봄의 의미와 비슷한 구성요소로 나타났으나 좀 더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되었다(표2). 자료의 분석결과 돌봄의 방법에 대한 구성요소는 <도와준다>, <안위를 유지해 준다>, <사랑으로 해준다>, <함께한다>, <따뜻하게 해준다>, <회복하게 한다>의 6개의 범주로 나타났는데 Leininger는 돌봄이 행동수준으로 조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도와준다>에서는 ‘신속하고 능숙하게’, ‘개별성을 고려하여’, ‘요구를 파악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지지하고 격려하여’, ‘익숙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여 돌봄의 의미에서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신속하고 능숙하게’에 대한 입원아동의 의미있는 진술은 “주사를 한번에 놔주어”, “검사를 빨리 빨리” 등이었으며 간호사는 “주사를 놓을 때 한번에”, “정확하고 민첩하게”, “기술적으로 능숙하게” 등이었다.

이는 돌봄의 의미에서 ‘치치해 줌’의 속성과 비슷하게 나타나 Brown(1986), Mayer(1987)의 연구에서 환자는 ‘주사, IV놓는 방법에 대해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간호행동으로 기술한 것과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개별성을 고려하여’에 대해서는 입원아동의 진술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간호사는 “아이의 입장과 생각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이의 상태에 맞게”, “연령층에 맞게” 돌봐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Larson(1987)도 환자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에 환자보다 간호사가 더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를 파악하여’에 대한 진술도 “불편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등으로 간호사에서만 나타났다.

‘자세하게 설명하여’는 입원아동이 “주사놓을 때 설명하여”, “아픈 원인에 대해 말해주어” 등으로 진술하였고, 간호사는 “엄마에게 교육하여”, “보호자에게 설명하여”로 입원아동은 자신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원한 반면 간호사는 입원아동보다는 보호자에게 교육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지지하고 격려하여’는 입원아동이 “실망했을 때 옆에서 격려해주어”, “힘들 때 옆에서 부축해주어”로 간호사는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어” 등으로 진술하였다.

‘익숙한 분위기를 제공하여’는 간호사에게만 나타났는데 “집에서와 같은 환경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조

성하여” 등으로 주로 환경제공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Watson(1986)에 의하면 carative factor로 지지적이고 보호적인 환경제공을 제시하였다.

〈안위를 유지해준다〉는 ‘편안하게’, ‘고통이 경감되도록’, ‘위로하여’의 속성으로 나타났는데 간호사에서는 ‘위로하여’의 속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돌봄 의미에서도 간호사의 〈위로해 줌〉의 속성은 아동에게만 나타나고 간호사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돌봄의 방법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였다.

‘편안하게’에서는 입원아동이 “편하게”, “걱정이 안 되게” 등으로 진술하였고 간호사는 “최적의 안녕상태를 유지하도록”, “간호사에 대해 불안, 무서움을 갖지 않도록”, “주사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도록” 등으로 진술하여 입원아동의 의료인에 대한 두려움과 주사에 대한 공포를 없애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고통이 경감되도록’에서는 입원아동이 “주사를 안 아프게”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반면 간호사는 “통증을 덜 느끼도록”, “고통을 덜 느끼게”로 진술하였다.

‘위로하여’는 입원아동에서만 “위로해주어” 돌봐주는 것이 좋다고 진술하였다.

〈사랑으로 해준다〉에서는 ‘사랑과 정성으로’, ‘관심을 갖고’, ‘존중하여’로 돌봄의미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사랑과 정성으로’는 입원아동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간호사는 “가족을 돌보듯이 정성으로”, “자기 자식을 돌보듯이 항상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관심을 갖고’에서는 입원아동이 “자주 찾아와 주어”, “자주 와서 물어봐 주어”, “자주와서 봐주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간호사는 “환아의 호소에 관심을 갖고”, “아는 척 해주어”, “자주 방문하여” 등으로 나타나 지각의 일치성을 보였다. ‘존중하여’는 간호사에게만 나타났는데 “의사를 존중하여”, “환아가 주사부위를 선택하도록” 하여 돌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Sobel(1969)은 인간적인 돌봄이란 다른 사람에게 갖는 관심, 염려, 존경감으로 모성적인 행위에 근본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함께한다〉에서는 입원아동과 간호사 모두 “같이 놀아주어”, ‘접촉하여’로 나타났으며 ‘공감하여’는 간호사

에게만 나타났다. ‘같이 놀아주어’는 입원아동이 “심심할때 같이 놀아주면” “옆에 있으면서 함께 놀아주면” 등으로 주로 어머니나 보호자가 없을 때 같이 이야기를 해주거나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아동과 같이 하는 시간을 많게”, “인형이나 장난감을 갖고 함께 놀면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였다.

‘접촉하여’는 입원아동에서 “손을 잡아주어”로, 간호사는 “토닥거리 주어”, “쓰다듬어 주어”, “피부나 눈의 접촉으로” 돌봐주는 것이 좋다고 진술하였다.

‘공감하여’는 “엄마의 입장이 되어”, “내 자신이 환이라고 생각하면서” 등으로 이는 간호사에서만 나타났다.

〈따뜻하게 해준다〉에서는 ‘부드러운 말씨와 행동으로’, ‘친절하게’를 돌봄의 의미중 〈온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부드러운 말씨와 행동으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살살 다루어”, “말투를 부드럽게”, “주사를 살살 짜주어”등으로 아동에서 나타났으며 간호사는 “웃어주고 얼러주면서”,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진술하였다.

‘친절하게’에서는 입원아동이 “친절하게 달래주어”, “웃으면서” 돌봐주는 것이 좋다고 나타났으며 간호사는 “친구처럼 대하면서”, “친밀한 용어를 사용하여”, “따뜻한 눈길과 손길로” 등으로 진술하였다.

〈회복하게 한다〉에서는 ‘낯게하여’의 속성으로 나타났는데 입원아동은 “건강하게 되도록”, “병원에서 빨리 나가도록”, “집에 갈 수 있도록”으로, 간호사는 “치료가 빨리 되도록”,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돌봐주는 것이 좋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대상자가 병원상황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상태에 관련된 용어들을 진술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같이 돌봄방법에 있어서 입원아동과 간호사의 지각은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와준다〉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요구를 파악하여’, ‘익숙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사랑으로 해준다〉의 ‘사랑과 정성으로’, ‘존중하여’, 그리고 〈함께한다〉의 ‘공감하여’는 간호사에게만 나타났으며, 〈안위를 유지해준다〉에서 ‘위로하여’는 입원아동에게만 나타났다.

〈표 2〉 입원아동과 간호사가 지각한 돌봄방법

구 성 요 소	하 위 구 성 요 소	입원 아동		간 호 사	
		빈도	계(%)	빈도	계(%)
도 와 준 다	신속하고 능숙하게	3	10(9.3%)	6	31(22.8%)
	개별성을 고려하여	0		7	
	요구를 파악하여	0		8	
	자세하게 설명하여	4		3	
	지지하고 격려하여	3		3	
	익숙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0		4	
안 위 를 유 지 해 준 다	편안하게	2	16(15.0%)	19	21(15.4%)
	고통이 경감되도록	13		2	
	위로하여	1		0	
사 랑 으 로 해 준 다	사랑과 정성으로	0	10(9.3%)	20	33(24.3%)
	관심을 갖고	10		9	
	존중하여	0		4	
함 께 한 다	같이 놀아주어	28	29(27.1%)	13	30(22.1%)
	접촉하여	1		5	
	공감하여	0		12	
따 뜻 하 게 해 준 다	부드러운 말씨와 행동으로	8	29(27.1%)	4	15(11.0%)
	친절하게	21		11	
회 복 하 게 한 다	낮게하여	13	13(12.1%)	5	5(3.7%)

3. 돌봄 경험

a. 돌봄제공자

대상자들의 돌봄받은 경험에서 돌봄제공자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입원아동 50명(65.8%), 간호사 20명(43.4%) 모두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돌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본인의 연구(1991)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으며 간호가 모성적인 돌봄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입원아동의 경우 돌봄제공자는 가족, 의사, 친구, 하나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는 가족, 친구, 간호사, 종교인, 의사의 순으로 돌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표 3-1〉 돌봄 제공자

입원아동			간호사		
돌봄 제공자	실수	%	돌봄 제공자	실수	%
어머니	50	65.8	어머니	20	43.4
간호사	12	15.8	가족(남편, 형제)	14	30.4
가족(조부모, 아버지)	6	7.9	친구(동료, 선후배)	7	15.2
의사	6	7.9	간호사	2	4.3
친구	1	1.3	종교인	2	4.3
하나님	1	1.3	의사	1	2.1

Wolf(1986)에 의하면 돌봄제공자는 가정과 건강관리

기관에서 가족 구성원과 같은 자연적인 지지체제와 간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지지체제를 갖는다고 하였다.

입원아동의 경우 돌봄제공자는 간호사보다 어머니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상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상당부분을 어머니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입원아동이 어머니와 간호사로부터 돌봄받은 경험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2).

b. 돌봄받은 경험

입원아동이 어머니와 간호사에게 돌봄받은 경험은 〈도와줌〉으로 지각한 것이 각각 83.1%, 77.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함께함〉, 〈관심을 가짐〉, 〈안위를 유지함〉의 네가지로 범주화되었다. 〈도와줌〉의 속성으로는 ‘시중들어줌’, ‘개인위생을 도와줌’, ‘지지해 줌’, ‘처치해 줌’, ‘충족시켜줌’, ‘가르쳐 줌’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돌봄은 간호사에 비해 ‘시중들어줌’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화장실 가고 밥 먹을 때 도와준다”, “이불을 덮어준다”, “먹고 싶을 때 시중들어준다” 등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세수할 때 도와준다”, “옷 갈아 입혀준다”, “머리빗겨 준다”등의 ‘개인위생을 도와줌’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간호사의 돌봄은 어머니의 돌봄에 비해 “체온을 재준다”, “주사를 놔준다”, “혈압

을 제공한다” 등의 ‘치치해 줌’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조갑출(1992)의 연구에서 ‘전문지식과 기술로 돕는 것’의 내용과 일치함을 보였다. 돌봄을 간호중재로 보는 입장에서는 모든 간호절차를 돌봄에 포함시키며 (Morse, 1990) 간호는 곧 돌봄이라고 주장하여 (Dier, 1986 ; McFarlane, 1976) 간호사들에게 있어 돌봄은 간호와 유사한 것으로 지각했다. <함께함>에서 어머니의 돌봄은 “아플때, 잠잘때 옆에 있다”, “이야기 해 준다” 등의 ‘같이 있어줌’의 속성만 나타나고 간호사는 ‘같이 있어줌’과 “배를 만져준다” 등의 ‘접촉함’이 모두 나타났다. 돌봄 상호작용에서 실존적 존재는 대상자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Riemen, 1986).

<관심을 가짐>에서 어머니는 “주사약이 잘 들어가는지 봐준다” 등의 ‘신경써 줌’의 속성만 나타났으며 간호사는 “아픈 곳이 없는지 물어본다”, “밤에 잘 잤는지 물어본다” 등의 ‘물어봄’과 “자주와서 봐준다”, “관심을 쏟아준다” 등의 ‘신경써 줌’이 모두 나타나 간호사는 돌봄의 정서적 영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게 나타났다(Porter, 1986).

<안위를 유지함>에서 ‘편안하게 해 줌’의 속성은 “편하게 해준다”, “저린 부위를 주물러 준다”로 어머니에게 돌봄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호사에게는 “안 아프게 두들겨 주고 위로해준다” “우울할 때 기분을 좋게 해

준다”라고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어머니와 간호사를 제외한, 가족에게 돌봄받은 경험으로는 “같이 있어주고 음식 먹여준다”, “어려운 일을 도와준다” 등이었으며, 친구는 “위로해 준다”, 의사는 “다리 운동을 시켜준다”고 진술한 내용도 있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는 “치료와 검사만 해주지 돌봐주지는 않는다”고 한 아동도 있었으며 “간호사 대신 엄마가 돌봐주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경우도 있었다.

Watson(1987)에 의하면 전문적인 돌봄과 비전문적인 돌봄(lay-caring)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다른 측면으로 구성되었다기보다 비전문적인 돌봄제공자가 지식이나 기술, 자원의 부족때문에 제공할 수 없는 돌봄의 측면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사가 전문적인 돌봄제공자와 비전문적인 돌봄제공자 사이의 상호관계를 분명히 확인하므로써 비전문적인 돌봄에서 부족한 점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전문적 간호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전문적 돌봄제공자는 비전문적 돌봄제공자를 대신한다기보다 충고자, 보완자(supplementer)로서 친척이나 다른 일반사람들이 대상자를 돌보는데 더욱 효과적으로 돌보는 방법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간호사의 교육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표 3-2> 입원아동의 돌봄받은 경험

구 요 소	하 위 구성요소	어 머 니		간 호 사	
		빈도	계(%)	빈도	계(%)
도와줌	시중들어줌	26	49(83.1%)	6	98(77.8%)
	개인위생을 도와줌	14		3	
	지지해 줌	6		2	
	치치해 줌	2		83	
	충족시켜 줌	1		0	
	가르쳐 줌	0		4	
함께 함	같이 있어 줌	5	5(8.5%)	8	9(7.9%)
	접촉함	0		1	
관심을 가짐	물어봄	0	3(5.1%)	5	14(11.1%)
	신경써 줌	3		9	
안위를 유지함	편안하게 해 줌	2	2(3.4%)	5	5(4.0%)

C. 돌봄 제공경험

간호사들이 입원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한 경험에 있어서 돌봄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와 방해가 되

는 요소를 기술하도록 한 결과, 한 개 이상의 요소를 진술 했는데 이를 세분하여 나열하였다(표 3-3).

돌봄의 필수요소는 <사랑>의 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사랑>에는 사랑하는 마음, 애정 등을 포함하였으며 이

≡ Fromm이 사랑을 돌봄의 구성요소라고 한 것과 일치하였다.

〈관심〉은 두번째로 필요한 요소로 나타났는데 돌봄은 인간성에 깊은 관심을 둔 것으로부터 일어나며 (Forrest, 1989)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것 (Gaut, 1983 ; Sobel, 1969)이라고 하였다.

〈지식〉에는 전문적 지식, 정확한 지식이 포함되었으며 〈기술〉에는 숙련된 기술등을 포함하였다. 그 외에도 〈이해〉, 〈공감〉, 〈인내〉, 〈정성〉, 〈시간〉, 〈친절〉, 〈지지〉, 〈편안〉이 돌봄의 필수요소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의 방해요소에서는 보호자의 〈과잉보호〉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두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시간〉은 돌봄의 필수요소에서 뿐 아니라 돌봄의 방해요소로 나타나 Bevis(1981)가 시간은 돌봄에 영향 미치는 요소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 그 외에 〈인력부족〉, 〈부적당한 환경〉, 〈과다한 업무량〉, 〈무관심〉, 〈비협조〉, 〈불신감〉, 〈관계형성 부족〉, 〈지식부족〉, 〈설명부족〉, 〈기술부족〉 등이 나타났는데 Wesorick(1991)은 간호실무에서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려면 충분한 인력배치, 계속 교육제공, 간호기록의 간소화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애정(1991)은 무관심은 비돌봄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며, Riemen(1986)에 의하면 무관심은 대상자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좌절, 공포, 우울, 분노,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낳는다고 하였다.

〈표 3-3〉 돌봄 제공경험

필수요소	빈도(%)	방해요소	빈도(%)
사랑	37(32.2)	과잉보호	25(22.7)
관심	23(20.0)	시간부족	15(13.6)
지식	13(11.3)	인력부족	14(12.7)
기술	9(7.8)	부적당한 환경	13(11.8)
이해	9(7.8)	과다한 업무량	8(7.3)
공감	7(6.1)	무관심	7(6.4)
인내	6(5.2)	비협조	7(6.4)
정성	3(2.6)	불신감	6(5.5)
시간	3(2.6)	관계형성 부족	6(5.5)
친절	2(1.7)	지식부족	3(2.7)
지지	2(1.7)	설명부족	3(2.7)
편안	1(0.9)	기술부족	2(1.8)
		권위 의식	1(0.9)

V. 결론 및 제언

A. 결 론

본 연구는 입원아동과 간호사가 지각한 돌봄의 의미, 방법 및 경험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돌봄에 대한 이론발달의 기초를 제공하고 대상자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 시내와 지방에 소재한 3개의 대학부속병원과 2개의 종합병원으로, 입원아동은 소아과 병동에 입원한지 2일 이상된 학령기 이상의 아동 총 76명이었으며 간호사는 소아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총 6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면접방법과 문헌고찰 및 사전조사를 통해 작성한 개방형의 비구조적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van Kaam의 분석방법의 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신뢰도는 연구자 2인에 의해 검증되었고 내용타당도 검증은 간호학 교수 3인, 박사과정 2인, 석사과정 이상의 자격을 지닌 간호사 2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이 진술한 돌봄의 의미는 〈도움〉, 〈안위〉, 〈사랑〉, 〈온정〉, 〈회복〉, 〈건강유지〉, 〈함께함〉, 〈양육〉, 〈책임〉으로 범주화되었다. 이 중 〈도움〉의 범주가 입원아동과 간호사 모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입원아동에게서는 〈건강유지〉가, 간호사에게서는 〈온정〉의 범주가 나타나지 않았다.

돌봄의 방법에 있어서는 돌봄의 의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행위인 〈도와준다〉, 〈안위를 유지해 준다〉, 〈사랑으로 해준다〉, 〈함께한다〉, 〈따뜻하게 해준다〉, 〈회복하게 한다〉로 입원아동과 간호사의 지각이 거의 일치하게 나타났으나 돌봄의 의미에서 확인된 〈건강유지〉, 〈양육〉, 〈책임〉의 구성요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도와준다〉에서는 ‘개별성을 고려하여’, ‘요구를 파악하여’, ‘익숙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사랑으로 해준다’에서는 ‘사랑과 정성으로’, ‘존중하여’, 그리고 〈함께한다〉의 ‘공감하여’는 간호사에서만 나타났으며, 〈안위를 유지해준다〉에서 ‘위로하여’는 입원아동에서만 나타났다.

돌봄받은 경험에 있어서는 입원아동과 간호사 모두

어머니로부터 가장 많이 돌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원아동의 경우 간호사보다 어머니가 돌봄제공자로 더 높게 나타나 어머니와 간호사에게 돌봄받은 경험을 비교한 결과, <도와줌>, <함께함>, <관심을 가짐>, <안위를 유지함>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와 간호사 모두 <도와줌>의 범주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돌봄은 주로 '시중들어줌'과 '개인위생을 도와줌'으로 나타났고 간호사의 돌봄은 기술적인 업무에 의한 '처치해 줌'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돌봄을 제공한 경험에 있어서 간호사들이 지각한 돌봄의 필수요소는 <사랑>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그 이외에 <관심>, <지식>, <기술>, <이해>, <공감>, <인내>, <정성>, <시간>, <친절>, <지지>, <편안>의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 방해요소는 보호자의 <과잉보호>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에 <시간부족>, <인력부족>, <부적당한 환경>, <과다한 업무량>, <무관심>, <비협조>, <불신감>, <관계형성부족>, <지식부족>, <설명부족>, <기술부족>, <권위의식> 등이 나타났다.

B. 제 언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돌봄을 중요시한 간호교육과정 모색을 위해 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2) 간호실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적용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3) 입원아동뿐 아니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고성희, 한국인의 정신건강 개념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 김애정, 간호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에서 환자가 인지하는 돌봄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김정선, 간호사의 돌봄과정에 대한 환자의 지각과 근육 주사시 동통지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김정선, 간호학생들의 돌봄에 대한 지각, 모자간호학회지, 1991.
- 방매륜, 출산에 관한 한국의 전통문화가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3.
- 변영순, 김남신, 돌봄개념의 의미에 대한 연구, 간호과학 제 1권,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 연구소, 1989.
- 조갑출, 돌봄의 본질과 간호윤리, 적십자 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91, 13.
- 조갑출, 돌봄의 의미에 대한 입원환자 보호자의 지각에 관한 연구, 적십자 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92, 14.
- 최영희, 한국의 전통문화와 돌봄, 간호학의 정립과 한국 전통문화 III,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연구소 학술 심포지움, 1990.
- Brown, L., Behaviors of nurses perceived by hospitalized patients as indicators of care.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3.
- Brown, L., The experience of care : Patient perspectives, *Topics in Clinical Nursing*, 1986, 8(2), 56-62.
- Boyle, J, An Application of the Structural-Functional in Leininger M.,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Slack, Thorofare, 1981, 37-48.
- Bevis, E.O., Caring : A life force, in Leininger M.,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Slack, Thorofare, 1981, 49-6.
- Cohen, J.A., Two portraits of caring : a comparison of the artist, Leininger and Wats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91, Vol 16, 899-909.
- Cronin, S.N., Importance of nurse caring behaviors as perceived by patients after myocardial infarction *Heart & Lung*, 1988, 17(4), 374-380.
- Dombeck, M.T., The Content of Caring : Conscience and Consciousness, *Caring : The Compassionate Hearler*, New York : National league for Nursing Press, 1991, 19-36.
- Farrell, G.A., How accurately do nurses perceive patients' needs? A comparison of general and psychiatric setting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91, 16, 1062-1070.
- Forrest, D. The experience of car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89, 14, 815-823.
- Gaut, D.A., Conceptual Analysis of Caring : Research Method, in Leiniger, M.,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Slack, Thorofare, New Jersey, 1981, 17-24.

- Gaut, D.A., Leininger, M., *Caring : The Compassionate Healer*, National League for Nursing Press, 1991.
- Guthrie B., The Interrelatedness of the Caring Patterns in Black Children and Caring Process Within Black Families, in Leininger M.,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Charles B. Slack, Inc., Thorofare, New Jersey, 1978.
- Henry, O. Nurse behaviors perceived by patients as indicators of caring,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6, 1975, 652B.
- Hutchison, C.P., Bahr, W.T., Types and Meanings of Caring Behaviors Among Elderly Nursing Home Residents, *Image*, 1991, 23(2), 85-88.
- Kitson, A.L., A comparative analysis of lay-caring and professional(nursing) caring relationships. *Int. J. Nurs. Stud.*, 1987, 24(2), 155-165.
- Kelly, L.S. High tech /High touch – Now More than ever, *Nursing Outlook*, 1984, 15.
- Larson, P.J., Comparison of cancer patients' and professional nurses' perceptions of important nurse caring behaviors, *Heart & Lung*, 1987, 16(2), 187-192.
- Larson, P.J. & Dodd, M.J., The cancer Treatment Experience : Family Patterns of caring *Caring : The Compassionate Healer*, New York : National league for nursing press, 1991, 61-78.
- Leininger, M., *Leininger's theory of nursing : Cultural care diversity & universality*, *Nursing Science Quarterly*, 1988, 152-160.
- Leininger, M., Phenomenon of caring : in Leininger, M., *Caring An Essential Human Need*, Slack, Thorofare, 1981, 3-16.
- Marrier, A., Nursing Theorists and Their work, *Watson, J. : Philosophy and Science of Caring*, C.V. Mosby, 1986.
- Mayer, D.K., Oncology Nurses' Versus Cancer Patients' Perceptions of Nurse Caring Behaviors : A Replication Study, *Oncology Nursing Forum* 1987, 14(3), 48-52.
- McFarlane J. A Charter for car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76, 1, 187 – 196.
- Morse, J.M. et al, Concepts of caring & caring as a concept, *Advanced in Nursing Science*, 1990, 13 (1), 1-14.
- Morse, J.M. et al, Comparative Analysis of Conceptualizations and Theories of Caring, *Image*, 1991, 23(2), 119-126.
- Oiler, C., *Nursing Research : A qualitative Perspective*, Appleton-Century-Crofts, 1986.
- Oiler, C.,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in Nursing Research, *Nursing Research*, 1982, 31(3), 178-181.
- Orem, D.E., *Nursing : Concepts of practice*, New York, McGraw-Hill, 1971.
- Pearson, p., Clients' Perceptions : the use of case studies in developing theor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91, 16, 521 – 528.
- Porter, E.J., Qualitative-Quantitative Dualism, *Image*, 1989, 21(2), 98-102.
- Rattan, N.S. A Clinical Application of Watson's Theory, *Pediatric Nursing*, 1989, 15(5), 458 – 462.
- Ray, M.A., A philosophical Analysis of caring within Nursing, in Leininger, M.,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Slack, Thorofare, 1981.
- Ray, M.A., Technological caring : A New Model in Critical Care, *Dimensions of Critical care Nursing*, 1987, 6(3), 166-173.
- Riemen, D.J., Non caring and caring in the clinical setting ; patient's description, *Topics in Clinical Nursing*, 1986, July, 84-93.
- Riemen, D.J., The essential structure of a Caring Interaction : Doing phenomonology, in Munhall, P.L., Oiler, C.J., *Nursing Research, a Qualitative perspective*, Appleton-Century-Crofts, 1986, 85-105.
- Roach, S.M., The call to Consciousness : Compassion in Today's Health World, *Caring : The Compassionate Hearler*, New York, National League for Nursing Press, 1991, 7-17.
- Rosenbaum, J.N., Comparison of two theorists on care : Orem and Leininge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86, 11, 409-419.
- Sobel, D.E., Human caring, *American Journal of Nursing*, 1969, 69(12), 2612-2613.

- Swanson-Kauffman, K.M., A Combined qualitative methodology for nursing research, *Advanced in Nursing Science*, 1986, 58-69.
- Swanson-Kauffman, K.M., Caring Needs of Women who Miscarried, in Leininger, M., *Care : Discovery and uses in clinical and community nursing*, 1988, 55-70.
- Swanson-Kauffman, K.M., Empirical Development of a Middle Range Theory of Caring, *Nursing Research*, 1991, 40(3), 161-166.
- Watson, J. *Nursing : The Philosophy and Science of Caring*, Boston : Little Brown, 1979.
- Watson, J., Nursings' Scientific Quest, *Nursing Outlook*, 1981, 29(7), 413-416.
- Watson, J., Professional Identity Crisis- Is Nursing Finally Growing up? *American Journal of Nursing*, 1981, 81(8), 1488-1490.
- Watson, J., Some Issues Related to a Science of Caring for Nursing Practice, in Leininger, M.,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Slack, Thorofare, 1981, 61-68.
- Watson, J., *Nursing : Human Science and Human Care*, Norwalk : Appleton-Century-Crofts, 1985.
- Watson, J., New Dimensions of Human Caring Theory, *Nursing Science Quarterly*, Williams & Wilkins, 1988, 175-181.
- Wesorick, B., Creating an Environment in The Hospital Setting that Supports Caring via a Clinical Practice Model(CPM), *Caring : The Compassionate Healer*, New York : National League for Nursing Press, 1991, 135-160.
- Wolf, E.R., The caring concept and nurse identified caring behaviors, *Topics in Clinical Nursing*, 1986, 84-93.

– Abstract –

Hospitalized Children and Their Nurses' Perception of Caring

Kim, Jeong Sun* · Kim, Shin Jeong**

Caring has been identified as the essence and unifying domin of nursing(Leininger). Many nurses believe that the art of nursing is comprised of actions that are predominantly caring in nature. Although caring has been the traditional ideology of nurses, it is only now beginning to emerge as the central construct for the development of nursing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The problem addressed by this study was to identify how hospitalized children and their nurses express the meaning of caring, how they think nurses should care for children and to describe their experiences of being cared for. The purpose was to provid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caring as perceived in Korea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nursing knowledge.

The subjects were 76 hospitalized children admitted to pediatric units in five teaching hospitals and 66 nurses who were caring for these children.

In this descriptive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Nov 11,1991 to Jan 30, 1992 by interviews and an open-end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by van Kaam's method.

Caring themes perceived by the children and their nurses were classified into eight categories, -helping,

* Assistant professor,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 Researcher,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comfort, love, warmth(only by children), recovery from illness, health maintenance(only by nurses), presence, nurturance and responsibility.

Ideal caring behaviors perceived by the children and their nurses were six categories,-to give help, provide comfort, give love, stay with, treat warmly and aid recovery. Subcategories of giving help were promptness and competence, detailed explanations and support and encouragement. Other subcategories of giving help reported only by nurses were individualizing care, recognizing needs and providing a familiar environment. Subcategories of maintaining comfort were making comfortable, alleviating pain ; one subcategory reported only by children was consolating. A subcategory of giving love was concern ; two subcategories reported only by nurses were compassion and respect. Subcategories of staying with were playing with and touching ; only

nurses reported empathy. Subcategories of treating warmly were tenderness and kindness.

In the experience of caring, there were 4 categories,-to give help, stay with, show concern and provide comfort. Both the hospitalized children and their nurses had experienced caring primarily from their mothers. Mothers' caring behaviors were direct, personal, basic, supportive nursing acts. On the other hand, nurses caring behaviors were task oriented skilled procedures and medically delegated acts.

This study contributes understanding of the complexity of caring, more specifically the meaning and experience of caring and ideal caring behaviors. Research may be able to move into verification when instruments are developed to measure the complexity of caring beliefs, values and behaviors in Korea and other cultural settings.